

5분 자유발언

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2017. 9. 1.(금) 10:00

---

## 공공자전거 “어울링” 에 대한 개선방안

---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김원식의원

## 공공자전거 “어울링” 에 대한 개선방안

- 사랑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!  
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 
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 
관계 공무원 여러분!
- 안녕하십니까? 조치원읍 죽림·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 
김원식 의원입니다.
- 먼저, 전국적인 계란 살충제 파동에 안전한 계란을 공급해주신  
농가와 발 빠른 전수조사를 실시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.
- 저는 오늘, 우리 시가 운영하는 「공공자전거 “어울링”에 대한  
개선방안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 
이 자리에 섰습니다.
- 환경오염 예방과 대중교통 분담을 위해 도입된 공공자전거 “어울링”은  
2016년 기준 52개의 대여소와 자전거 60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,  
2016년 기준 운영비로 5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.
- 저희 시는 인구 50만 기준 대여소 494개, 자전거 5,640대 설치를  
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이 계획에 따르면, 2017년 이후 대여소 442개 추가 설치비용 97억 원과  
대당 약 80만 원 공공 자전거 5,035대 추가 설치비용 40억 원 등  
자전거 및 대여소 설치 비용만 137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
해볼 수 있으며,

-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 2,000대 운영에 연간 21억 원이 소요되었으며, 저희 시도 2020년 이후 연간 20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또한, 무거운 자전거와 높은 자전거 거치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“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”에 따르면, 공공자전거 불만족 사유 1위로 31.8%가 “자전거의 무거움”을 선택하였고, 여성의 불만족 사유 1위도 역시 37.6%가 선택한 “자전거가 무거움”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.
- 이에, 본의원은 “어울링”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, 자전거 관리 및 운영상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- 첫째, “어울링”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“키오스크” 없이 대여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.

본 의원은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

해당 그림은 도담동에 위치한 키오스크입니다.

이 키오스크 1대 설치하는데 2,200만 원이 소요되므로 키오스크 설치 비용만 줄여도 향후 97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의 경우처럼 스마트 폰과 자전거만으로 대여 및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.

- 둘째, 노인·여성 등 교통약자를 위해 “어울링”자전거 경량화와 거치대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.

“어울링”의 경우 서울시 보다 약 2kg 무거운 20kg이고, 바퀴 크기도 2인치가 큰 26인치입니다.

또한, 자료와 같이 자전거 거치대가 고정식으로 높게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대여 시 자전거를 들고 탈부착 하여야하기 때문에, 여성의 경우 더욱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

자전거를 경량화 시키고, 거치대 높이를 낮춘 줄을 이용한 탈부착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.

- 이와 함께 공공자전거 운영 비용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하여야 하고, 인근 대전시처럼 기후변화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 지원을 받아 공공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이자 명품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- 끝으로,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4개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,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.

-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17년 9월 1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원 식